

만나기, 뛰어넘기, 새로만들기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안보와 그 과제

Feminist IR Critique of "Security"

저자 (Authors)	황영주 Hoang Young-ju
출처 (Source)	국제정치논총 47(1), 2007.3, 75-94(20 page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47(1), 2007.3, 75-94(2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국제정치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003485
APA Style	황영주 (2007). 만나기, 뛰어넘기, 새로만들기. 국제정치논총, 47(1), 75-94
이용정보 (Accessed)	한국외국어대학교 203.253.93.*** 2021/12/20 01:5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만나기, 뛰어넘기, 새로만들기: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안보와 그 과제

황 영 주
(부산대학교)

< 차례 >

- | | |
|----------------------------|------------------------------|
| I. 서론 | 2.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안보개념 |
| II. 여성의 눈으로 국제정치학 “만나기” | 폭넓게 만들기(broadening gendering |
| III. 여성과 평화를 “뛰어넘기” | security) |
| IV.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평화와 안보 | 3.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안보개념 |
| “새로만들기” | 확장하기(extending gendering |
| 1.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안보개념 | security) |
| 깊게 만들기(deepening gendering | V. 결론: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과제 |
| security) | |

· 주제어: 페미니즘 국제정치이론, 비판이론, 젠더, 페미니즘 안보, 포스트모던 국제정치 이론 Feminist IR theory, the critical theory, gender, the feminist concept of security, post-modern IR theory

【한글초록】

이 논문은 국제정치학의 핵심적 영역인 평화와 안보의 문제에 대하여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어떤 비판을 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권력, 국가, 이분법 및 과학적 방법론을 어떻게 비판하는지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국제정치학의 중심적 개념으로 알려진 이러한 개념들 속에는 결국 무성적(asexual)인 아닌 남성적 정체성이 숨어있다는 것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진영에서 제기하는 비판의 핵심적 내용이었다. 둘째, 여성과 평화가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본질주의적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이러한 관련성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에 고찰하였다. 즉 여성과 평화의 본질적 관련성은 기존의 젠더화된 이분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동시에 여성의 힘갖추기의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비판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였다. 셋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서의 안보논의에 대하여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시에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평화와 안보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는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는 기존의 안보 개념을 극복하여 그것을 확장·심화·상호연관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I.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여성과 안보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에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평화와 안보의 문제는 국제정치학의 주요 주제와 대상으로 고위 정치(the high politics)의 영역에 해당된다. 반면 전지구적 관점에서 여성과 여성의 문제는 저위 정치(the low politics) 또는 사적문제(the private of matters)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과는 달리 지난 1990년대 이후 일단의 페미니즘 그룹에서는 페미니즘과 국제정치학과의 긴밀한 대화를 시도해 오고 있다. 특히 이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정치학의 핵심적 범주로 여겨지는 평화와 안보의 문제에 관련하여 그것의 가부장제적 속성을 폭로하거나, 여성적 관심과 이해를 덧붙이거나, 나아가서는 여성적 시각(lens)에서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이 논문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여성”의 눈으로 국제정치학 만나기”에서는 페미니즘 또는 분석의 도구로서 젠더가 어떤 방식으로 전통적인 국제정치학과 조우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페미니즘이 전통적 국제정치학에 대하여 어떤 비판을 가하고 있는지를 개념과 인식론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평화와 여성을 뛰어넘기”에서는 일부 페미니즘 그룹에서 여성을 평화와 관련시키는 인식과 방법에 대하여 비판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기존 평화연구의 경향을 소개하고, 여성과 평화를 관련시키는 것을 젠더화된 사회구성의 반복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평화와 안보 새로 만들기”에서는 페미니즘 시각에 입각, 안보에 대하여 재정의 하고자 한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이 기존의 안보 개념을 어떻게 확대·심화하고, 나아가서는 불안정성(insecurity)을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 논문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한편,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극복해야 할 여러 과제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이 논문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전통적 국제정치학에 대한 비판·해체·재구성 시도를 살펴보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

II. 여성의 눈으로 국제정치학 “만나기”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국제정치학자중 일부 그룹은 페미니즘과 국제정치(학)의 관계에서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등장 은 탈냉전이후 급격한 국제정치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¹⁾

냉전의 종식 이후에 나타나는 현실국제정치의 다양한 변화 자체는 국제정치학의 대상에 대

1) 여기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주로 황영주, “국제정치와 페미니즘,” 미네르바정치연구회편, 『국제질서의 패러독스』 (경기: 인간사랑, 2005), pp. 341-342에 의존하고 있다.

한 진지한 반성을 불러왔다. 또한 이전까지 냉전에 의해 가려 있었던 국제정치의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종족분쟁 및 문명의 충돌이 전통적으로 국제정치학의 범주로 알려진 국가중심, 세력균형 및 이익중심의 설명에 도전을 하게 되었다”²⁾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민족갈등, 인권 및 환경 등의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게 되었고, 여성과 여성 문제의 부각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현실 국제정치의 변화는 국제정치학에서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의 모색으로 이어졌다. 전통적 국제정치학이 갖는 지배적 패러다임에서 일정한 정도 거리가 있는 새로운 해석과 설명을 요구하며, 다양한 방법론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제 3의 논쟁(the third debate)”³⁾과 관련되는 이러한 움직임은 후에 비판이론(the critical theory), 사회구성주의론(the social constructive theory) 및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으로 대표되며, 이른바 후기 실증주의적(post-positivist) 경향으로 요약된다.⁴⁾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성적차별성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정치학의 주제, 대상 및 관심 등이 이미 젠더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 속에서 전형화된 남성의 이미지-강인함, 용기, 권력, 독립성과 또한 무력을 기꺼이 사용하려는 점-은 국제정치학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다.”⁵⁾ 아울러 “국제관계이론의 문헌 분석을 통해서 본다면 국제정치학 담론 자체는 남성적 정체성이 어떻게 창조, 형성 및 유지되는지를....”⁶⁾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정치학이 겉으로 보면 남녀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성(無性)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남성의 관점 또는 남성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이 어떤 점에서 젠더화 또는 성적차별성을 가진다는 것일까? 이 논문에서는 이를 국제정치학의 기본적 개념인 권력과 국가로, 국제정치학의 기초적인 인식론인 이분법과 과학적 방법론(the scientific method)로 구분하여 비판해보고자 한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정치학의 가장 기본적 개념인 “권력(power)” 안에 남성적 관심이 숨어있다고 생각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제정치학의 기본적인 분석과 현상은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매개되는 수가 많다. 그러나 티커너(Tikner)와 같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2) J. Ann Tickner, *Gendering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p.1.

3) Yosef Lapid, “The Third Debate: on the Prospects of International Theory in a Post-positivist Er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3(3)(1989); 이와 같은 비전통적 방법론에 의거한 국제정치이론의 정리는 Steve Smith, “Reflectivist and Constructivist Approaches to International Theory,” in John Baylis and Steve Smith (ed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2001), pp.224-249를 참조하라.

4) 이와 같은 논의들은 James Der Derian(ed.) *International Theory: Critical Investigations* (Houndmills: Macmillan, 1995); Ken Booth and Steve Smith(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oday* (Cambridge: Polity, 1995)를 참조하라.

5) Kathleen R. McNamara, “Whose Security?: Femin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6(2)(1993), p.548.

6) Anne Sisson Ruyan, “Still not “at home” in IR: Feminist World Politics Ten Years Later,” *International Politics* 39(Sept.)(2002), p.362.

자는 권력현상 자체는 남성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남성성과 정치는 가까우면서도 장기적 관계를 맺어왔다. 남성다움과 관련된 특징들 예컨대, 강인함, 용기, 권력, 독립, 심지어 육체적 강함 등은 역사적으로 정치적 기준에서 볼 때(무엇보다도 국제정치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흔히 남성다움은 폭력 및 무력의 사용 등 국제영역에서 행하여지는 하나의 행동 양태로 아울러 국가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거나 지지를 받아왔다.⁷⁾

달리 표현하면, 국제정치학에서 권력현상 자체는 남성다움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⁸⁾ 요컨대, 국제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서 권력은 주로 남성성(masculinity)의 표현이며, 이렇게 될 때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자체는 여성성(femininity)을 포함한 포괄적 인간의 경험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적 추상화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높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정치의 핵심적 행위자로 간주되는 일원적 국가(the unitary state)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기존의 국제정치학에서 국가의 행위를 추상화할 때 그 기반은 남성의 행동에 대한 유추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국가행위로 간주되는 인간성의 모델은 -이는 주로 원자적이며, 자조적이며, 획득적이며, 경쟁적인데- 특정한 인간종의 부분집합(subset), 즉 엘리트 남성과 특정한 역사적 맥락, 즉 근대 유럽에 기반을 둔 것이다.”⁹⁾ 이렇게 될 때 국가의 정체성은 근대 유럽적 맥락의 엘리트 남성의 행위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의 최고 권력으로서 주권(sovereignty) 또한 남성적 개념을 반영하거나 또는 남성적 개념의 형성과 확정을 반영하고 있다. 주권은 국제관계에서 국가가 갖는 고도의 자율성 또는 독립성의 외부적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는 남성적 특질을 반영하는 또 다른 모습이 된다.¹⁰⁾ 특히 근대국가형성에 있어 주권개념의 형성은 바로 주체(self)/타자(other)의 구획 짓기와 관련되는데, 이는 정치적 자아·자국/타자·타국의 형성 뿐만 아니라, 남성적 주체(the masculine self)/여성적 타자(the feminine other)라는 젠더 구별과 밀접하게 관련되기도 한다.¹¹⁾

7) 황영주의 옮김, 『여성과 국제정치』안 티커너 지음 *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부산: 부산외대출판부, 2001), p.22.

8)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정복과 강인함에 가치를 부여하는 남성적 우위와 패배와 약함으로 상징되는 여성적 가치는 양자 함께 상징적 구성물로 작동을 한다. 황영주의(2001), pp.22-23.

9) V. Spike Peterson, “Feminist Theories Within, Invisible to, and Beyond IR,”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10(2)(2004), p.37. 특히 “현실주의는 각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동맹을 만들고 깰 수 있는 (그러나 타국의 문제에는 간섭하지 않는) 분리되고 자율적인 행위자로서 국가라고 하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자율성 개념은남성적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김연각·김진국·백창재 옮김, 『국제관계의 이해』 Joshua S. Goldstein, *International Relations* (경기: 인간사랑, 2002), p.157.

10) “국가주권과 합리성은 보편적인 객체 즉 ‘과학적’ 법칙의 발견으로 인정된 계몽주의 인식론의 일부인데....서구의 근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객관성과 합리성과 같은 개념은 대개 남성적 사고와 관련되어졌다.” 황영주의(2001), p.113.

11) V. Spike Peterson, “Subjectivity, Security and Sovereignty: Making Connections,”

페미니즘 국제정치학들은 또한 국제정치학의 인식론적 기초인 내적 질서와 외적 무질서라는 이분법(dichotomy)이 여성에 대한 성적차별성과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인식은 국내/국외, 질서/무질서, 전쟁/평화 및 안보/불안정 등과 같은 이원적 대립 구조에 기초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안보에 대한 담론의 핵심은 국내적 질서/국제적 무질서라 할 것이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억압과 여성성에 대한 폄하 또한 이러한 이원적 대립구조에 기초한다. 즉, 세상의 모든 물상을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젠더화된 이원적 대립(the gendered binary opposition)이라는 인식론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원적 대립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서 공격/사적, 객관/주관, 주체/타자, 이성/감성, 자율성/관계성 및 문화/자연으로 구별하는 경향이 강한데, 전자는 남성성과 후자는 여성성과 관련되는 수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이원적 대립구조가 여성에 대한 억압을 만들어내고 존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¹²⁾ 이에 따라서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국제정치현실에 대한 이원적 인식구조는 결국 여성에 대한 성적차별성과 분리될 수 없다는 비판을 얻게 된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전통적 국제정치학자들, 특히 실증주의자들이 지향하는 국제정치학의 과학화 역시 이미 젠더화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잘 알려진 바와 국제정치에서 과학이란 “이미 존재하는 자연의 기계론적 법칙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시도이다.”¹³⁾ 특히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는 국제정치학의 ‘과학’ 발전을 주장하면서, 국제정치체제에서의 국가 행위가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다.”¹⁴⁾ 그러나 과학을 통해서 구축되는 지식은 겉으로 보기에 객관성(objectivity)이 확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과학의 발전단계에서부터 이미 성적차별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¹⁵⁾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정치학의 과학화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관계에 관한 페미니즘의 저작물들은 국제관계학이 객관성이라는 허울(the guise of objectivity)로 여성보다는 남성의 전형적인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를테면 합리적 선택 이론가들의 무정부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도구적인 경쟁행위에 관련된 설명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시장에서의 행위자로 남성과 관련된 자기 이익추구행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러한 맥락에서 피터슨(Peterson)이 주장한 바와 같이 “객관적 지식의 소유자이든 자율적 정치적 행위자이든 주체적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을 인식론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없

Presented Paper in Annual Meetings,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1996), p.5.

12) 황영주의(2001), p.24.

13) J. Ann Tickner, “Searching for the Princess?: Feminist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21(Fall)(1999), p.46.

14) Tickner(1999), p.46.

15) 이를테면 “17세기 초기에 들면서 과학적 논증(scientific reasoning)은 분명히 남성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고 (이들 남성적인 것과는 다르게) 배제되어 있는 것들을 여성적인 것으로 분류하면서, 남성적인 것들을 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고양시켰다. 지식을 갖는 자(knower)로서의 남성은 과학과 이성으로 일체화되는 반면; 여성은 감성과 비이성적인 것과 관련시켰다.” Tickner(1999), p.46.

16) Tickner(1999), p.46.

게 된다.”¹⁷⁾ 다른 말로 정리하자면, 국제정치학의 과학화는 젠더화된 남성적 인식론의 또 다른 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존하는 국제정치학의 기초적인 개념과 인식론으로서 권력, 국가, 이분법 및 과학성에 대한 비판은 새로운 방식으로 페미니즘과 국제정치학을 만나게 하는 모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피터슨에 의하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전통적인 국제정치학과 페미니즘적 이론들의 조우를 모색한다.¹⁸⁾ 첫째, 국제정치학에서 “남성적 기준들의 정도와 영향을 폭로(*exposing the extent and effects of masculinity bias*)하는 경우이다.”¹⁹⁾ 예를 들어 이는 전쟁을 설명함에 있어 전쟁에서의 폭력과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남성 및 남성성과 관련되는지를 보여주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둘째, 이미 존재하는 국제정치학의 구조에 여성과 여성의 경험을 끼워넣는 경우(*adding women and their experiences to existing framework*)라 할 것이다.²⁰⁾ 예를 들어 이는 외교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존재에 대하여 주목하고, 동시에 국제정치의 무대에 여성의 존재(*presence*)를 인지하고 관심을 갖는 것과 관련된다. 셋째, 국제정치학 이론을 재구성(*reconstructing theory*)하는 경우로 나누고 있다.²¹⁾ 예를 들어 이는 지금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인 평화와 안보를 기존의 평화와 안보와 다른 방식으로 재정의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할 것이다.

Ⅲ. 여성과 평화를 “뛰어넘기”

평화연구(*peace studies*)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평화를 관련시키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연구의 성격과 발전과정에 대한 간략한 조망이 필요하다. 평화연구는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이 필요없는 국내적-국제적인 사회구조의 창출과, 사회적 불공정을 제거하고 사회적 정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국내적-국제적 질서형성을 구상하고 모색...”²²⁾하는 목적을 지닌다. 또한 평화연구는 “평화에 대한 과학적·

17) V. Spike Peterson, “Transgressing Boundaries: Theories of Knowledge,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1(2)(1992), p.197. 특히 그녀는 “...실증주의적 설명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주체적이며 이성적인 자아’는 일종이 허구인데, 이는 주로 엘리트 남성의 경험과 남성성에 기초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Peterson (1992), p.197.

18) Peterson(2004), pp.37-40.

19) Peterson(2004), p.37.

20) Peterson(2004), p.37.

21) Peterson(2004), p. 39. 아울러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Deborah Stienstra, “Cutting to Gender: Teaching 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1 (2000), pp.233-244. 아울러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황영주(2005), pp.353-356에서도 다루고 있다.

22) 홍민식,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제평화』 창간호(2004), p.6. 다른 곳에서의 평화연구에 대한 정의는 “전쟁, 폭력 및 체계적 억압의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폭력을 극소화시키면서 정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갈등과 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갈등과 변

객관적 연구를 지향하지만, 주어진 현상에 대하여 항상 옳고 그름의 판단을 추구하는 점에서 다분히 규범적이고 가치지향적 성격²³⁾을 지닌다. 특히 다양한 발전과정을 경험한 평화연구²⁴⁾는 이러한 성격을 반영하여,

평화연구에서는 국제관계의 초점을 국가간 분석수준으로부터 이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개인·국내·세계 수준에서의 사회적 관계)라는 개념으로 이동시키고자 한다. 평화연구자들은 전쟁과 평화를 개인적 책임, 경제적 불평등, 남성/여성관계, 문화적 차이, 기타 사회적 관계의 여러 측면들과 결합시킨다. 이들은 평화의 가능성을 국가지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찾지 않고(사회혁명을 통한) 모든 사회의 변혁과(국가를 우회하고 국경을 무시하여 사람과 집단들을 지구적으로 연결시키려는)초국가적 공동체에서 찾고 있다.²⁵⁾

사실상 전쟁과 폭력에서 여성이 처한 고통은 남성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게 드러난다. 여성은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며, 집단강간과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며,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노동을 담당해야 하며, 난민촌 등에서 죽음과 굶주림은 물론, 성폭력 및 인신매매 등에 노출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²⁶⁾ 또한 여성들이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이기에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에서 훨씬 비극적 경험을 할 것이며, 전쟁준비 때문에 발생하는 복지예산의 부족이 결국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것이며, 무엇보다도 전쟁자체는 현존하는 남성적 지배/여성적 피지배라는 가부장제를 더욱 강화시킨다.²⁷⁾

이러한 경향에서 일부 평화연구자들은 여성과 평화가 강력한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의 양육경험이 남성과의 차별성을 지니게 하며, 이에 따라서 여성의 평화성이라는 것은 도덕적 열등성이 아니라 우위성이라는 주장을 한다.”²⁸⁾ 또한 사회화에서

화와 관련하여 지역, 국가 및 전지구적 수준과 이데올로기, 문화 및 기술에 관련되는 경제, 정치 및 사회체계의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Linda Rennie Forcey, “Women as Peacemakers: contested Terrain for Feminist Studies,” *Peace & Change* 16(4)(1991), p.335.

23) 홍민식(2004), p.6. 동일한 맥락에서 평화연구는 “함축적 이데올로기적 경향(implicit ideological bias)”과 “행동주의적 정향(activist orientation)”을 지닌다고 강조한다. Forcey(1991), p.335.

24) 홍민식의 연구에 따르면, “평화연구는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으로부터의 자극과 영감 속에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가 조직화된 평화운동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였다면 20세기는 조직화된 평화연구가 정착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초기 평화연구는 전쟁연구가 주축을 이루었다.그런데 점차 평화의 개념이 다양하게 확장되고 아울러 평화운동도 단순한 반전운동을 넘어선 빈곤, 기아, 핵무기, 환경, 여성, 인권문제 등으로 그 관심영역을 확대하게 됨에 따라 평화연구는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겪게 되었다. 이제 전쟁의 원인뿐만 아니라 평화의 조건까지 탐구하게 된 평화연구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함께 어우러진 종합적인 학제간 연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홍민식(2004), p.6.

25) 김연각·김진국·백창재(2002), p.174.

26) 자세한 내용은, 강윤희, “여성과 평화표준 형성: 한국여성평화운동을 중심으로,” 『국제평화』 3(1)(2006a), pp.37-39를 참조하라.

27)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전방향,”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0), pp.21-22; 비단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여성은 직접적·물리적 폭력에서, 구조적·제도적 폭력에서, 문화적 폭력에서 남성보다 더 취약하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이재봉, “여성과 평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상과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제언” 『평화연구』 7(1998), pp.315-326.

여성은 주로 평화적인 가치를 위해서 교육되는 반면에, 남성은 전쟁을 위해서 교육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²⁹⁾ 특히 여성의 양육 경험을 중심에 두면서 여성과 평화를 보다 정교하게 관련시키는 연구도 있다. 즉 먼저 여성을 돌봄의 제공자(care-giving)로 보고, 돌봄과 양육에서 나타나는 여성적 속성이 국제적 갈등의 해결과정에서 남성들보다 인내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성의 도덕적 어머니 역할(moral motherhood)라는 입장에 주목하면서, 갈등해결방법에 있어 폭력에 호소하는 관행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서는 모성애사고(maternal thinking)에 주목하면서 권력, 체계모니 및 위계질서와 같은 개념을, 이와 같은 모성에 사고로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³⁰⁾

그러나 여성을 본질적으로 평화로운 존재로 보는 이러한 논의들은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성과 평화를 관련시키는 경향은 이와 같은 본질주의적 입장이 아닌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되어져야 한다. 버저서(Burguières)에 따르면 여성과 평화를 관련시키는 경향과 방법은 크게 다음 세가지 부분으로 정리될 수 있다.³¹⁾ 첫째는 여성들이 평화주의자이며, 또한 모성애적 사상의 담지자로 보는 접근법이다. 본질주의적 페미니즘(essentialist feminism)의 입장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해석은 남성과 여성의 갖는 본질적 차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평화로운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다.³²⁾ 둘째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주장으로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함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여성이 갖는 평화로움을 강조하기 보다는 오히려 동등한 시민권을 획득, 향유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직접 군에 입대하거나, 심지어 전투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³³⁾ 셋째는 반(反)군사주의적 페미니즘(anti-militaristic feminism)의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여성이 본질적으로 평화로운 존재라는 것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군사화된 사회적 관행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³⁴⁾ 요컨대, 여성과 평화 또는 전쟁을 관련시키는 입장은 본질주의적 접근이외에도 이와 같이 다양한 입장에서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성과 평화를 관련시키는 본질주의적 관점의 문제점들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으로 여성과 평화를 등치시키는 발상은 기존의 젠더와 관련되는 이분법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에서 평화를 여전히 “전쟁의 부재(the absence of war)”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전쟁을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것으로,

28) Jill Steans,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troduction* (Cambridge: Polity, 1998), p.118.

29) Birgit Brock-Utne, “Listen to Women—For a Change,” *Peace Review* 2(4)(1990), p.32, Jan Jindy Pettman, *Worlding Women: a Feminist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Routledge, 1996), p.113에서 재인용.

30) Mark Tessle, Jodi Nachtwey and Audra Grant, “Further Tests of the Women and Peace Hypothesis: Evidence from Cross-National Survey Research in the Middle Eas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3(3)(1999), p.520.

31) Mary K. Burguières, “Feminist Approaches to Peace: Another Step for Peace Studie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9(1)(1990), pp.1-18.

32) Burguières(1990), pp.3-4.

33) Burguières(1990), pp.5-6.

34) Burguières(1990), pp.5-6.

평화를 소극적이며 비활동적인 것으로 보아서 전쟁과 남성/평화와 여성으로 이원화시킨다. 만약 여성이 평화적 부분에만 그 활동영역을 국한시킨다면, 기존의 젠더화된 이분법적 사회 구성을 그대로 수용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³⁵⁾ 이렇게 될 때 여성의 수동성 또는 소극성이 다시 한번 확정되고,³⁶⁾ 여성의 역할은 주체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³⁷⁾ 다른 한편으로 여성과 평화를 등치시키는 발상은 여성의 힘갖추기(empowerment)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현재의 국제정치학이 젠더관계를 그대로 담보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성의 힘갖추기가 이러한 세계질서에 녹아있는 젠더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면, 여성과 평화를 등치시키는 입장으로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염원할 수 없다. 동시에 이러한 입장은 여성들을 일원화되고 수동적인 타자(the other)로 만들기에,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다양한 여성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³⁸⁾ 이와 같은 배경에서 여성과 평화를 등치시키는 방법 이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과 평화를 관련시키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 과제가 등장한다. 여성과 평화를 등치시키는 기존의 경향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여성과 평화에 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IV.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평화와 안보 “새로만들기”

전통적인 국제정치학, 특히 현실주의자의 안보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주로 “무정부”, “국가” 및 “군사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³⁹⁾ 첫째,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제사회는 무정부사회이다. 국내정치와 유사한 질서를 제공하는 권력의 부재는 결국 흡수적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라는 자연상태로 유추될 수 있다. 둘째, 국가는 이러한 측면에서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개별 국가의 행위를 통제하는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 즉 전쟁은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다. 셋째, 이에 따라 개별 국가는 위험상태에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는 오직 자신의

35) 황영주, “평화, 안보 그리고 여성: 지구는 내가 지킨다의 페미니즘적 재정의,” 『국제정치논총』 43(1) (2003), p.54.

36) Christine Sylvester, “Riding the Hyphens of Feminism, Peace and Place in Four-(Or More) Part Cacophony,” *Alternatives* 18(1993), p.110.

37) 황영주의(2001), p.86.

38) 실버스터의 경우 “만약 여성을 평화와 등치하면 첫째, 기존의 가부장제 질서를 타파하려는 능동적인 여성과 일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고, 둘째 여성들을 일원화 되고 수동적인 타자(homogeneous and passive other)로만 인식하게 되고, 셋째 어머니가 아니거나 양육자가 아닌 여성들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은 고려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Sylvester (1993), p.110; 황영주(2003), p.54.

39) 여기에서의 정리는 주로 황영주(2005), pp.358-359에 의존하고 있다. 현실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는 주로 Micael Josep Smith, *Realist Thought from Weber and Kissinger*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6); 우암평화연구원편, 『정치적 현실주의의 역사와 이론』 (서울: 화평사, 2003)을 들 수 있다. 또한 보다 간결한 정리는 Tim Dunne and Brian C. Schmidt, “Realism,” in Bylis and Smith(2001), pp.141-161을 참조하라.

힘과 능력에 의존하여(self-help)해야만 한다.⁴⁰⁾

반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전통적 국제정치학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현실주의적 안보 논의에 회의적이다. 한편으로 볼 때,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국가에 의해서 제공된다는 국내적 질서가 개인에 대한 안전(security)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국가 안보가 달성되고, 국가에 의해서 질서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경험할 수 있다.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물리적,⁴¹⁾ 구조적·제도적,⁴²⁾ 문화적 폭력⁴³⁾은 개인 특히 여성의 안전이 국가의 안전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정확하게 말해준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 국가의 자조로 인한 분쟁과 갈등에서 국가를 구하는 방법, 즉 국가 안보는 주로 군사력 및 국력의 증강에 있다는 접근에 대해서 페미니즘 학자들은 진지한 비판을 하고 있다. “국가의 보호가 곧 국민의 보호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전쟁은 국민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상정된다.”⁴⁴⁾ 그러나 군사력의 강화 및 전쟁에서 여성은 보호받기 보다는 이용되거나,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는 “기존안보의 불안정(insecurity of security)”⁴⁵⁾라는 개념과 연결된다.

그렇다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는 평화와 안보를 어떻게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을까? 먼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지적인 빛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적극적 평화”⁴⁶⁾와 관련되며, 다른 하나는 “비판안보이론”⁴⁷⁾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평화

40) 황영주의(2001), p. 47.

41) 황영주의(2001), pp. 82-85; 이재봉(1998), pp. 314-326. 이는 주로 “남성의 완력과 만용이 여성에게 신체적으로 휘두르는 폭력이다. 이러한 폭력의 사례는 가정에서 매맞는 아내를 통해 찾아볼 수 있고, 사회에서는 강간 또는 성폭력으로 드러난다. 이에 폭언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재봉(1998), p. 315.

42) 이는 주로 “...각종 법률과 제도 그리고 전통을 포함한 사회구조를 통해 여성들이 당하는 차별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일컫는다.” 이재봉(1998), p. 317.

43) 이는 주로 “여성에 대한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재생산하는 문화를 일컫는다. 학문과 예술, 그리고 종교 등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남녀불평등이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조장되어 폭력이 생활과 전통으로 되어버리는 현상이다.” 이재봉(1998), p. 324.

44) 황영주(2005), p. 362.

45) 이러한 논의와 관련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Rachel Cornwell and Andrew Wells, “Deploying Insecurity,” *Peace Review* 11(3)(1999)을 참조하라. 이 논문은 아시아에서 있어 안보 구축을 위한 미군의 존재가 오히려 환경, 종족-문화 및 여성에 대한 불안정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하고 있다.

46) “어떤 평화연구가는 물리적, 구조적 및 생태학적 폭력의 제거라는 용어로 안보를 정의하고 있다. 폭력을 고려함에 있어 물리적 폭력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면 전쟁과 평화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평화는 단지 전쟁의 부재(the absence of war)가 아닌 좀 더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평화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에 대하여 고려해 볼 수 있게 한다.” 황영주의(2001), p. 41.

47)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평화와 안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빛을 지고 있는 비판안보이론(the critical security studies)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Tickner에 의하면 비판안보이론과 페미니즘국제정치학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세가지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첫째, 비판이론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안보라는 것은 국가중심의 합리적 행위자를 기반으로 하는 합리주의의적인 틀에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와 행위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이와 같은 정체성들이 타국과 타인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울러 이와 같은 요구가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 비판이론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안보에 대한 접근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대항을 통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국내적 정체성의 구성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서구의 이원적 대립구조라는 형이상학에서 출발한다. 마지막으로 비판이론은 안보연구에 있어서 보다 해방적인

와 안보 논의를 위해서는 비판이론에서 평화와 안보 논의에 대한 틀(framework)또한 빌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존스(Jones)는 전통적인 안보개념에 대항하여 비판이론입장에서 새로운 안보개념을 기존의 안보 개념보다 깊게 하고(deepening security), 폭넓게 만들고(broadening security), 그 영역을 확장하는 것(extending security)으로 정의하고 있다.⁴⁸⁾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안보논의도 유사한 방식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안보개념 깊게 만들기(deepening gendering security)

먼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는 안보개념을 하위 레벨(the micro level)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⁴⁹⁾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국가수준의 안보보다는 주로 인간중심(people-centred)적 안보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인종, 계급, 성별 및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서 야기되고 있는 다양하면서 중첩된 불안정의 해결은 국제체제 및 국가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인간 또는 여성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⁰⁾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안보논의가 주로 위에서 아래를 보는 관점(top-down)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안보논의 자체를 주로 아래에서 위를 보는 관점(bottom-up)을 채택하고 있다. 이때 안보의 수혜자는 전통적 관점에서 중요시 하는 국가 또는 국제체제가 되기 보다는 인간 또는 여성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인간 특히 여성에 대한 각종 억압이 해결되는 것이 평화와 진정한 안보가 달성된다는 해방론적 시각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다.⁵¹⁾

인간중심적 안보접근은 여성이 경험하는 각종 폭력에 대한 관심을 촉구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서 여성과 관련한 다양한 종류의 폭력에 대한 해결 없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안보는 성취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예컨대,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의 군사적 안보를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에게 안전한 밤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회는 안보를 확보하지 못했다(insecurity)고 말할 수 있다. 아울러 인간중심적 안보 접근은 인간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군사적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주의 및 전쟁에서 오히려 강화되는 모

(emancipatory)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부스(Booth)와 같은 사람은 안보를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및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개인 및 집단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인데, 이때 자유는 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J. Ann Tickner, “Feminist Responses to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Peace Review* 16(1)(2004), pp.46-47.

48) Jones(1999), pp.102-117.

49) 사실상 비판(안보)이론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 지적인 원류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비판이론에서 안보 개념을 깊게 만든다는 것은 전통적인 안보개념이 부분적인 타당성, 국가적 갈등 등에만 집중하여 왔기 때문에 전체성(totality)을 무시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안보라는 개념을 정치 및 정치적 삶에 있어 갈등과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안보의 정치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결국 이는 결국 인간의 정치적 해방을 실현시키는 방식에서 안보의 개념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Jones(1999), pp.102-104.

50) 황영주(2004), p.359.

51) Tickner(2004), p.47.

습으로 나타남을 강조한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는 군사주의가 여성에 대한 통제를 수반한다고 비판한다.⁵²⁾ 특히 페미니즘 국제정치학들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에서 여성의 희생자, 저항자 및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주목을 하고 있다.⁵³⁾ 이때 여성은 전쟁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남성적 주체에 부가되는 타자의 역할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2.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안보개념 폭넓게 만들기(broadening gendering security)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안보개념은 또한 국가의 국경선을 넘어서는 전지구적인 영역의 안정과 관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⁵⁴⁾ 페미니즘 평화연구가인 리어돈(Reardon)에 따르면 안보에 대한 두 개의 중요한 원칙은 “포괄성(inclusivity)”과 “전체성(holism)”이 된다. 이때 포괄성은 주로 개인의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전지구적인 안보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반면에, 전체성은 개별적인 것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⁵⁵⁾

티커너(Tickner)의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보는 전지구적 안보에 대한 논의는 페미니즘에서 파악하고 있는 안보논의의 전지구적 맥락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연구 중에 하나이다.⁵⁶⁾ 그녀는 페미니즘적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를 통해서 대안적인 국가안보⁵⁷⁾, 대안적 경제안보⁵⁸⁾ 및 대안적 생태안보⁵⁹⁾를 논의하고 있다. 말하자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주로 현 지구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독립적인 정치적 이해 보다는 전지구의 공통의 이익을 위한 협력, 화해 및 조정이 국제정치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52) 황영주(2003), p.52; 오미영 “군사주의 폭력과 젠더화된 위계질서,” 『여성연구논집』 13(2002), pp.91-112.

53) Eric M. Blanchard, “Gender,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Feminist Security Theory,” *Sign: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28(4)(2003), pp.1300-1301.

54) 비판이론에서 안보개념을 폭넓게 만든다는 것은 군사적인 개념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안보(security of human collectivities)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보의 실체가 이미 광범위한 사회, 정치, 경제를 포함하고 있고, 더 나아가 문화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안보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Jones(1999), pp.104-112.

55) Terriff, Croft, James and Morgan(1999), pp.93-94.

56) 황영주의(2001); 황영주(2003), pp.59-63.

57) 이는 페미니즘적 원칙에 따라서 국가의 자율성이나 독립성보다는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황영주(2003), pp.59-60을 참조하라.

58) 이는 페미니즘적 원칙에 따라서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무엇보다도 상품과 부를 위한 생산 보다는 생명을 위한 생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황영주(2003), pp.60-61를 참조하라.

59) 이는 여성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 참여 및 페미니즘적 원칙에 따라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적 태도 또는 근대성의 기계론적 관점에서 탈피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황영주(2003), pp.61-63을 참조하라.

3.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안보개념 확장하기(extending gendering security)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주로 다면적·다수준의 안보를 강조하고 아울러 이러한 안보들이 상호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⁶⁰⁾ “많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안보를 다면적(multi-dimensional)으로, 또한 다수준(multi-level)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는데, 이는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그리고 환경에 가해지는 폭력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함께 이해하고, 이를 함께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⁶¹⁾

이러한 맥락에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우선 폭력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한다. “페미니스트들은 법이 미처 닿지 못하는 잊혀진 가정폭력에 대한 촉구와 함께 모든 분석의 수준(all levels of analysis)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억압의 상호관련성에 대하여 지적한다.” 이에 따라 “안보에 관한 페미니스트들의 관점은, 폭력과 억압이 국제적, 국내적 또는 가정의 영역이든 상관없이 상호관련되어 있다고 추정한다.”⁶²⁾ 나아가서 근대세계의 환경에 가해지는 폭력은 여성에 대한 남성적 지배는 물론, 국가사이 힘의 불균형과 상호연관되어 있다고 믿는다.⁶³⁾ 이러한 배경에서 특정 안보를 위해서 누군가가, 특히 여성이 희생되는 것은 충분한 평화와 안보를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활동가는 “....군사력을 기반으로 안보를 보장하려는 국가는 실제적으로는 여성인권을 도외시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서 여성을 희생시켜왔음을 지적해왔다. 미군에게 성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지촌 여성들은 국가안보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한 섹터인 것처럼 간주되나 진작 그 여성들의 생존권, 건강권, 노동권은 방치되고 있다”⁶⁴⁾고 지적한다.

V. 결론: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과제

이 논문은 국제정치학의 핵심적 영역인 평화와 안보의 문제에 대하여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어떤 비판을 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또한 그것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권력, 국가, 이분법 및 과학적 방법론을 어떻게 비판하는지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국제정치학의 중심

60) 비판이론에서 안보개념의 영역을 확장한다는 것은(extending security)은 앞에서 언급한 안보 개념을 수용하여 협력적이면서 공동의 세계안보(cooperative or common world)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또한 정치적 삶의 재조명과 관련되는데, 지금까지의 안보가 국가·민족적 주체의 보존과 타자의 배제 또는 소멸이었다면, 앞으로의 안보는 이러한 이분법을 배제하면서 다양성(diversity)과 공존(co-existence)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Jones(1999), pp.112-117.

61) J. Ann Tickner, “You Just Don’t Understand: Troubled Engagements between Feminists and IR Theorist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1(4)(1997), p.624.

62) 황영주의(2001), p.85.

63) 황영주의(2001), p.164.

64) www.wri-irg.org/books/seoul-reader-ko.htm (2005년 동북아시아 평화 국제회의) 김엘리, “젠더관점에서 본 국가안보.”(검색일 2006. 11. 3).

적 개념으로 알려진 이러한 개념들 속에는 결국 무성적(asexual)인 아닌 남성적 정체성이 숨어있다는 것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진영에서 제기하는 비판의 핵심적 내용이었다. 둘째, 여성과 평화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본질주의적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이러한 관련성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에 고찰하였다. 즉 여성과 평화의 본질적 관련성은 기존의 젠더화된 이분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동시에 여성의 힘갖추기의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비판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였다. 셋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서의 안보 논의에 대하여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시에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평화와 안보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는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는 기존의 안보 개념을 극복하여 그것을 확장·심화·상호연관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전통적 국제정치학의 영역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비판과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페미니즘적 대안은 일정한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티커너(Tickner)의 주장에 따르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제1세대”와 “제2세대”로 구별이 가능하다. 1세대들은 주로 1990년대 초반에 활약을 한 학자들로, 국제정치학의 중심 가정과 개념이 갖는 남성적 기준에 대하여 도전하면서, 국제정치학의 이론과 실재가 어떻게 젠더화 되어있는가를 보여주었다. 반면, 2세대들은 국제정치학에서 젠더와 여성의 삶에 주목하면서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적 사례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⁶⁵⁾ 말하자면 이와 같은 사례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국제정치학의 하위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결국 국제정치학을 풍부하게 만들고, 다양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도 페미니즘 운동가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의 노력들은 일정한 성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성, 평화와 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라는 제목을 가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1325호의 채택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⁶⁶⁾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평화, 안보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도록 유엔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로비활동을 펼친 여성들의 노력의 결실이었다.”⁶⁷⁾ 이러한 안보리 결의안의 실효성을 따지기 이전에, 전지구적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엔의 다양한 노력과 논의에서 평화와 안보 문제를⁶⁸⁾ “여성”과 결부시키기 시작한

65) J. Ann Tickners, “Gendering a Discipline: Some Feminist Methodological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Relations,”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30(4) (2005), p.2178.

66) 그 상세한 내용은 <http://www.un.org/womenwatch/ianwge/taskforces/wps/sixyears.html>에 잘 정리되어 있다(검색일 2006. 11. 4).

67) 강윤희, “여성과 평화: 국제적, 지역적 평화 표준 형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발표논문(2006b), p.65.

68)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보장이사회, 유엔총장, 유엔회원국가, 군사관련자들, 인도주의 기구들, 시민 사회들이 무력 갈등 지역에서 여성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강윤희(2006b), p.66.

것은 페미니즘 운동가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의 가시적인 성과라 할 것이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학문적·현실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내부의 이론적 편차에 대한 고민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입대에 대하여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여성의 입대가 여성의 시민권 확대로 여성의 힘갖추기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여성의 군입대가 남성적 군사화에만 기여한다고 반대하고 있다.⁶⁹⁾ 사실상 지금까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내부의 이론적 편차에 대하여 본격적 논의 또는 논쟁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드러나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말하자면, 그 이론적 발전 수준을 비추어 볼 때,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라는 통칭으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더 이상 단순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전통적 국제정치학과의 관계 설정문제이다.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독자적인 이론 부재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데, 이러한 비판이 갖는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론적 한계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일부에서도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중요한 주장은 주로 후기 실증주의적 정향(post-positivist approaches)에서 기인된 것이다.⁷⁰⁾ 물론 이들이 분석의 도구로 젠더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국제정치학의 폭을 확대시키는 논의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페미니즘 자체의, 보다 더 독자적인 방법론과 인식론이 제기되어야 하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제기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를테면 전통적 국제정치학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 해체를 가하면서도 동시에 전통적 국제정치학의 담론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다. 예를 들어 이 논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페미니즘에서의 대안적 “안보” 또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비판 내지는 해체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안보 영역에 대한 논의를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갖는 독자적인 영역 구축 시도는 오히려 기존의 국제정치학 영역에서 상당히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게토(ghetto)화 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셋째, 현실적이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는 일부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는가의 고민거리도 제기된다. 이미 이 논문의 앞에서도 다룬 바와 같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국가 중심의 안보가 실제로 여성과 인간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점을 폭로하는데 있다. 이는 국가 중심의 안보에 대한 전일적 사고에 대하여 다른 사고를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에 따라서 국가 중심의 안보가 여성과 인간의 안보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과 국가 대신 인간과 여성 안보를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의 문제는 엄밀하게 따져 보면 사실상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⁷¹⁾

69) 이와 관련한 주요 논쟁은 “Women in the Military and War Complex” in Lois Ann Lorentzen and Jennifer Turpin(eds.) *The Women and War Reader*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8)를 참조하라.

70) 이 논문의 주 47번을 참조하라.

그러나 일부에서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말하자면 국가 대신 인간과 여성 안보를 누가 책임지는지 분명히 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적 여성연대, 전지구적 여성 운동 등의 대안 내지 해결방법의 제시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이론적 정향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애매한 대답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제안하는 여러 대안들 또한 실천적 계토화의 반복 가능성을 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거리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을 약하게 만들거나 토대를 허물어 버린다고 보다는 오히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진보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초반에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으로 비추어 본다면 이와 같은 여러 고민거리는 곧 극복될 수 있고,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71) 말하자면 콕스(Cox)가 주장한 바와 같이 국제정치이론은 주로 문제 해결 이론(problem-solving theory)과 비판이론(critical theory)으로 나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주요 정향은 주로 문제해결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지배적 패러다임에 대하여 흠집을 내는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Robert Cox, "A Perspective on Globalization," in J.H. Mittelman(ed.) *Globalization: Critical Reflections* (Boulder: Lynne Rienner, 1996)을 참조하라.

참 고 문 헌

- 강윤희. “여성과 평화표준 형성: 한국여성평화운동을 중심으로,” 『국제평화』 3(1)(2006a).
- 강윤희. “여성과 평화: 국제적, 지역적 평화 표준 형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발표논문(2006b).
- 김연각 · 김진국 · 백창재 옮김. 『국제관계의 이해』 Joshua S. Goldstein, *International Relations* (경기: 인간사랑, 2002).
- 오미영. “군사주의 폭력과 젠더화된 위계질서,” 『여성연구논집』 13(2002).
- 우암평화연구원편. 『정치적현실주의의 역사와 이론』 (서울: 화평사, 2003).
- 이재봉. “여성과 평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상과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제언,” 『평화연구』 7(1998).
-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전방향,”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0).
- 홍민식.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제평화』 창간호(2004).
- 황영주. “국제정치와 페미니즘,” 미네르바정치연구회편, 『국제질서의 패러독스』(경기: 인간사랑, 2005).
- 황영주.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보는 안보와 평화의 문제,” 『국제문제논총』 15(2004).
- 황영주. “평화, 안보 그리고 여성: 지구는 내가 지킨다의 페미니즘적 재정의,” 『국제정치논총』 43(1)(2003).
- 황영주의 옮김. 『여성과 국제정치』안 티커너 지음 *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부산: 부산외대출판부, 2001).
- Bilgin, Pina. “Theory/Practices in Critical Approaches to Security: A Opening for Dialogue?,” *International Politics* 38(2001).
- Blanchard, Eric M. “Gender,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Feminist Security Theory,” *Sign: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28(4)(2003).
- Booth, Ken. Ken Booth and Steve Smith(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oday* (Cambridge: Polity, 1995).
- Burguières, Mary K.. “Feminist Approaches to Peace: Another Step for Peace Studie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9(1)(1990).
- Cornwell, Rachel I. and Andrew Wells, “Deploying Insecurity,” *Peace Review* 11(2) (1999).
- Cox, Robert., “A Perspective on Globalization,” in J.H. Mittelman(ed.) *Globalization: Critical Reflections* (Boulder: Lynne Rienner, 1996).

- Derian, James Der(ed.). *International Theory: Critical Investigations* (Houndmills: Macmillan, 1995).
- Dunne, Tim and Brian C. Schmidt, "Realism," in John Baylis and Steve Smith (ed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2001).
- Forcey, Linda Rennie. "Women as Peacemakers: contested Terrain for Feminist Studies," *Peace & Change* 16(4)(1991).
- Hansen, Lene. "The Little Mermaid's Silent Security Dilemma and the Absence of Gender in the Copenhagen School,"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9(2)(2000).
- Hill, Felicity Hill Mikele Aboitiz and Sara Poehlman-Doumbouy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ole in the Buildup and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28(4)(2003).
- Jones, Richard Wyn. *Security, Strategy and Critical Theory* (London: Lynne Rienner, 1999).
- Krause, Kieth and Michael C. Williams(eds.). *Critical Security Studies: Concepts and Cas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 Lapid, Yosef. "The Third Debate: on the Prospects of International Theory in a Post-positivist Er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3(3)(1989).
- Lorentzen, Lois Ann and Jennifer Turpin(eds.) *The Women and War Reader*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8).
- Mcnamara, Kathleen R.. "Whose Security?: Femin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6(2)(1993).
- McSweeney, Bill, *Security, Identity and Interests: A Soci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Pettman, Jan Jindy. *Worlding Women: a Feminist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Routledge, 1996).
- Peterson, V. Spike. "Feminist Theories Within, Invisible to, and Beyond IR."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10(2)(2004).
- Peterson, V. Spike. "Subjectivity, Security and Sovereignty: Making Connections," Presented paper in Annual Meetings,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1996).
- Peterson, V. Spike. "Transgressing Boundaries: Theories of Knowledge,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nium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1(2) (1992).
- Ruyan, Anne Sisson. "Still not "at home" in IR: Feminist World Politics Ten Years Later" *International Politics* 39(Sept.)(2002) .

- Smith, Micael Josep. *Realist Thought from Weber and Kissinger*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6).
- Smith, Steve. "Reflectivist and Constructivist Approaches to International Theory" in John Baylis and Steve Smith (ed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2001).
- Steans, Jill.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troduction* (Cambridge: Polity, 1998).
- Stienstra, Deborah. "Cutting to Gender: Teaching 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1(2000).
- Sylvester, Christine. "Riding the Hyphens of Feminism, Peace and Place in Four-(Or More) Part Cacophony," *Alternatives* 18(1993).
- Terriff, Terry, Stuart Croft, Lucy James, Patrick M. Morgan, *Security Studies Today* (Cambridge: Polity, 1999).
- Tessle, Mark, Jodi Nachtwey and Audra Grant, "Further Tests of the Women and Peace Hypothesis: Evidence from Cross-National Survey Research in the Middle Eas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3(3)(1999).
- Tickners, J. Ann. "Gendering a Discipline: Some Feminist Methodological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Relations,"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30(4)(2005).
- Tickners, J. Ann. "Feminist Responses to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Peace Review* 16(1)(2004).
- Tickners, J. Ann. *Gendering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 Tickners, J. Ann. "Searching for the Princess?: Feminist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21(Fall)(1999).
- Tickners, J. Ann. "You Just Don't Understand: Troubled Engagements between Feminists and IR Theorist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1(4)(1997).
- <http://www.wri-irg.org/books/seoul-reader-ko.htm> (검색일 2006. 11. 3).
- <http://www.un.org/womenwatch/ianwge/taskforces/wps/sixyears.html> (검색일 2006. 11. 4).

Feminist IR Critique of “Security”

Hoang, Young-ju
(Pusan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feminist criticizing to the concept of security in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this respect, the study deals with how women and security are related each other, and how gender reformulates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relations. Firstly, this study focuses on the gendered critique of the key concept of IR, ‘power,’ ‘nation-state,’ ‘dichotomy,’ and ‘the scientific research method’ in which, some feminist believes, the identity of masculinity are underlayered. Secondly,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ace study and feminist IR. Especially, the feminist think that the essentialist approaches to making connection between peace and women should be criticized because of their accepting gendered dichotomy and neglecting the chance of women’s empowerment. Thirdly, this study works on the way of how feminist IR theory is deconstruct and reconstruct the idea of security, in which feminist IR theorists try to make the security concept deeper, broader and extender. Another front, this study picks also up several obstacles, when feminist IR theorists formulate feminist IR theory. Overall, the main concern of this study is feminist’s critique,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security in the traditional IR theory.

투 고 일 : 2006년 12월 30일
심 사 일 : 2007년 1월 22일
심사완료일 : 2007년 3월 23일